

신약개론 3강_마가복음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조금 풀리나 싶더니 다시 바람이 불고 눈비도 내렸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조깅도 하시고 목욕도 하세요. 그리고 목이 좀 칼칼하다 하시면 코소독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개론 강의를 하면서 누구보다 큰 유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권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갖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덕분에 성경을 한 권씩 정리하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한 주 내내 화요일 강의로 인해 마음이 쏠립니다. 조상경의 시간표는 화요일 저녁으로 맞춰져 있다고 할까요? 월요일 대학원 수업. 화요일 신약개론 강의 준비. 수요일 밀린 일 처리. 목요일 개인 공부. 금요일 신약개론 강의 준비. 주말 사역 및 육아. 이렇게 한 주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개론을 듣고 유익했다는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강의가 지루하면 어떡하지? 듣고도 영적인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조금 거룩한 부담감부터 사람이 적게 오면 어떡하지?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늘도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 인기가 없는 복음서였습니다. 고대 설교집이나 서간문, 변증서들은 마가복음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복음의 그늘에 가려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초대 교회 시절부터 사람들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된 각 사건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더 이상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요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즘 많은 학자들은 마가우선설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거죠.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바나바의 생질(cousin)이자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것이 얼마 전 경건의 시간 본문에 나왔죠. 하지만 바울의 후기 편지를 보면 마가와 화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몬 1: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 어머니 집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의 집이 상당히 부유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죠(행 12:12).

마가는 복음 사건들을 모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죠.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 소개합니다.

벧전 5: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전한 복음이 베드로 사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기록한 복음서는 처음부터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작연대**

네로의 박해가 극심했던 66~68년 경으로 보입니다.

***기록장소**

기록장소는 로마로 추정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복음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암시하는 많은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양한 라틴어 어법이 나옵니다. 12:42을 볼까요?

마가복음 12:42 (NKRV)

⁴²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렵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넣었다는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유대적인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7:3-4 (NKRV)

³(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⁴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냇그릇을 씻음이라)

마가복음 7:11 (NKRV)

¹¹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하던 손 씻는 관습과 고르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유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네팔에 단기선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아마 네팔에 간 단기선교 날짜를 합친다면 두 달을
넘을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어느 손으로 먹을까요? 네. 오른손으로 먹습
니다. 왼손은 왜 안 될까요? 왼손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씻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손잡이지만 원래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질하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
는 기괴한 사람인데요. 네팔은 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지 왜 왼손은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네팔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손으로 먹는지도요.

마가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썼기에 유대문화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
다는 것도 로마 저작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여덟 장은 예수님의 강력한 사역,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능력의 일들로 군중들을 놀라게 하시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 중심의
이야기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적인 면은 마가복음에서 “곧”(헬라어 euthus)이라는 단어가
42번이나 사용된 데에서 나타납니다. 때때로 이 단어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다음 중요한 것
은?”이라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7번, 누가복음에는 1번, 요한복음에서는
3번 등장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누는 중요한 경계점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마가복음 8:29 (NKRV)

²⁹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은 마가복음에서 핵심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묻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1:1입니다.

마가복음 1:1 (NKRV)

¹**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죽기까지 섬기는 아들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주시지만 9장부터는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능력으로 로마를 전복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음을 바로 앞의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8:22-26 (NKRV)

²²벳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²³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²⁴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가는 것을 보나다 하거늘

²⁵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사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²⁶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벳새다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이 일화를 선택하여 그것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베드로의 신앙고백 앞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마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일화를 여기에 배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 보시죠.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25 (ESV)

²⁵Then Jesus laid his hands on his eyes again; and he opened his eyes, his sight was restored,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영어성경으로 보면 문맥의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자 그가 그의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의 8:14-21은 어떨습니까? 제자들의 이해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부각됩니다.

배에 떡 한 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하셨습니다. 21절에 “아직도 깨닫지(이해하지) 못하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개안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마치 벳새다의 소경처럼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고(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

닙니다.) 우리를 위해 수난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가가 담아낸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과 달리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로 짧습니다.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로 나오죠. 마가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수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본 후에야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배웠듯이 마태복음은 교차구조로 다섯 개의 서사(스토리)와 다섯 개의 강화(설교)로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굉장한 문학적 장인이다 평가한다고 했죠. 마가복음은 더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1-8장, 9-16장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비교적 연대기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I. 서론: 복음의 시작(1:1-13)
- II. 그리스도의 사역(1:14-8:30)
 - A. 예수의 권위와 바리새인들의 우둔함(1:14-3:6)
 - 1. 서론(1:14-20)
 - 2. 치유의 기적들(1:21-45)
 - 3. 논쟁 이야기들(2:1-3:6)
 - B. 예수의 비유와 표적들과 세상의 우둔함(3:7-6:6상)
 - 1. 제자도와 반대(3:7-35)
 - 2. 비유들(4:1-34)
 - 3. 더욱 극적인 기적들(4:35-6:6상)
 - C. 예수의 이방인 사역과 제자들의 우둔함(6:6하-56)
 - 1. 더 많은 사역과 반대와 기적들(6:6하-56)
 - 2. 청결과 불결: 이스라엘을 떠나심(7:1-8:21)
 - 3. 육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력(8:22-30)

III. 그리스도의 수난(8:31-16:8)

A. 죽으심의 예언과 제자도의 의미(8:31-10:52)

1. 예시된 십자가와 부활(8:31-9:29)
2. 참된 섬김에 대해서(9:30-50)
3. 십자가를 앞둔 유대에서의 사역(10:1-52)

B. 예수와 성전(11:1-13:37)

1. 입성과 심판(11:1-25)¹
2. 가르치심과 논쟁(11:27-12:44)
3. 멸망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재림(13:1-37)

C. 예수 생애의 절정(14:1-16:8)

1. 고난을 위한 준비(14:1-16:8)
2. 십자가 처형(15:1-47)
3. 부활(16:1-8)²

위에 열거한 구조의 특징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설교와 구조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실까요?

베드로의 설교와 마가복음의 유사성

사도행전 10장	마가복음
복음(36절)	복음의 시작(1:1)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38절)	예수께 성령이 임하심(1:10)
갈릴리에서 시작하여(37절)	갈릴리 사역(1:16-8:26)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침과 축귀에 초점이 있음

¹¹ 26절은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사본에는 없다. 만약 이 구절을 받아들여려면 1-25절에 연결해야 한다.

² 많은 학자들이 16:9-20은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본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38절)	
우리는...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39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11-14장)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39절)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15장)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40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16:6)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아마도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통적인 내용을 이야기체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C. H. Dodd의 견해). 마가는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와 적대적 행위를 일찍부터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점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름학교 약속의 말씀이자 섬김할 때 주로 주장되는 약속의 말씀 있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마가복음 10:45 (NKRV)

⁴⁵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제자훈련 하면 둘 째 가라 하면 서러운 우리교회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도 닮고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16:9-20은 본래 마가복음의 일부인가?**

대부분의 헬라어 사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신 것과,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소위 긴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JV(King James Version)를 제외한 현대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난외주나 각주로 표시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9-20]. 괄호 안에 이 구절들이 들어 있고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9-20절까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끝나는 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이 16:8에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마가가 배열한 의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막 1:1

¹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6:8 (NKRIV)

⁸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8절을 보면 복음서에서 늘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여성들(5:28, 34; 7:29; 12:41-44; 14:3-9)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도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마가는 이런 기록으로 마가복음을 어정쩡하게 마쳤을까요?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고난 받고 죽음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에서 주목해 볼 부분

영광과 고난의 길(8:27-10:52)

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가는 마가복음의 중심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 목적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심

8:31	9:30-31	10:32-34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라 하시니라
--	---	---

2) 제자들의 오해

8:32-33	9:32(33-34)	10:35-40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	--	--

3) 예수님이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가르치심

8:34-38	9:35-37	10:41-45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견해**

예수님의 수난 또는 예수님의 승리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난과 영광이 균형 있게 다뤄지고 있다고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절정으로 놓고 달려가는 구조를 볼 때 예수님의 수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백

부장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5:39 (NKRIV)

³⁹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에게 신의 아들(υἱὸς θεοῦ)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으로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사는 백부장이 별거벗겨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보고 난 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더 능력 있어지고 힘을 갖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놓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써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난(고난)은 제자도를 측정하는 측정계입니다. 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없이 "고난"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9:15-16 (NKRIV)

¹⁵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¹⁶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디모데후서 1:8 (NKRIV)

⁸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3 (NKRIV)

³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5 (NKRIV)

⁵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고난이 끝일까요? NO!

마가복음 16:6 (NKRIV)

⁶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나님 (의 아들)은 우리를 수난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렇다면 제자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 1: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도의 골격이 되는 말씀)

제자들의 반응. 즉시 “버리고” “따름”

시몬과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름.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그 샅군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름.

부자청년 vs 소경 바디매오

부자청년(10:17-31):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여 감”

소경 바디매오(10:46-52):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좇음” – 겹옷을 내버리고 좇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

구약에서 ‘사람 낚는 어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예레미야 16:16 (NKRV)

¹⁶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에스겔 29:4 (NKRV)

⁴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하박국 1:14-17 (NKRV)

¹⁴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¹⁵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¹⁶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¹⁷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나 한 편으로 말세에 사람들을 모으는 종말론적인 사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편에게는 심판이지만 한 편에게는 구원.

그러므로 제자로의 부르심은 곧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따름'에는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버림이고, 재물에 대한 버림이고, 욕심에 대한 버림이고(막 4: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심지어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에 대한 버림이고(10:29), 또한 자기에 대한 버림 곧 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을(막 8:34-35;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버리고 따를 수 있을까요? 막 13:33-37에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세 번 경고하셨는데요. 막 14:32-42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버린 것은 보상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주말에 렘&베벌리 브래들리 부부께서 왔다 가셨죠. 저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 세팅 책임자로서 참 분주했습니다. 많게는 네 다섯 명, 적게는 세 명에서 세팅을 하고 세미나가 끝나면 뒷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를 펴고 모두가 떠난 제일 뒤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일 밤 보상심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섬겼으니 나를 위해 뭘 좀 해야하지 않겠어?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이 취미가 생긴 게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토스를 응원하는데요. 프로토스를 사용하는 게이머가 잘 하는 것을 보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늦은 밤 종종 한 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석사과정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배워야 여러분들과 미래의 성도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습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일락을 "버림"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증인"의 삶을 요청하시죠. 노방전도는 정말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들.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그 시간에 책 읽고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경건의 시

간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복음을 듣겠어? 괜히 시간 낭비다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다시 노방전도를 짧게라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따름”입니다.

아직도 버리고 따라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